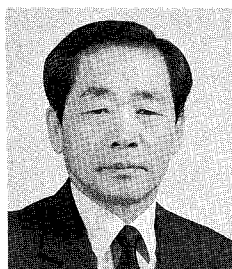


미래지향적인 양계산업 육성 위해 종계 · 부화장 허가제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박 근 식

(분회 위생방역대책위원/농학박사)

최 근에 와서 한국의 양계산업 분야에서는 정부의 뉴캐슬병의 박멸계획을 정부주도로 수행할 의지를 표명하고 그 계획을 실행하기 시작하였다. 그 동안 타 축종에 비해 소외되었다고 생각한 대부분의 양계 분야 종사자들에게는 정부에 감사하며 희망을 갖기 시작한 것은 다행한 일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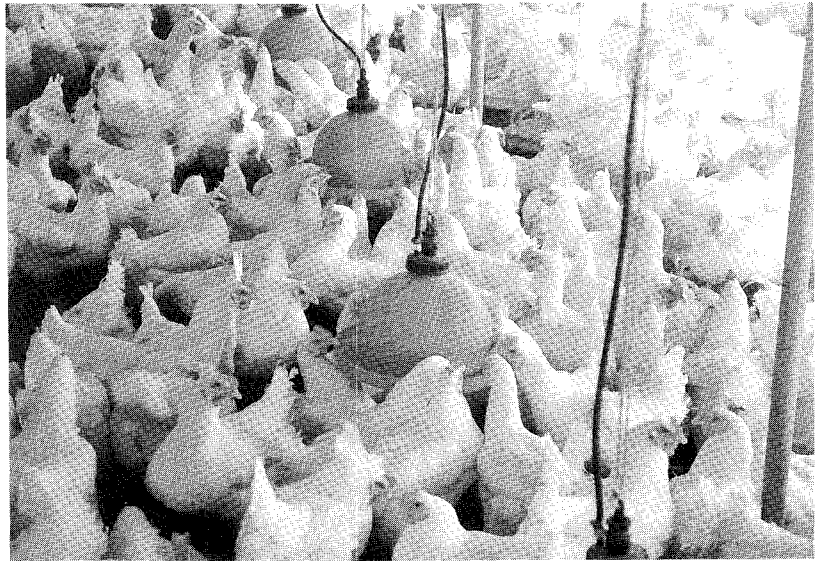
그러나 뉴캐슬병이나 가금 인플루엔자 등 양계산업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전염병과 인수공통전염병(人獸共通傳染病)으로 공중보건 위생에 영향을 미치는 질병 등은 국가가 법으로 정하여 관리하는 국가 방역이 더욱 강화되어야하나 국민의 정부에서는 규제완화라는 명목으로 정부가 관리해야하는 기초방역 분야까지 규제완화의 틀 속에 넣어 신고제로 한다는 것은 크게 잘못된 발상이다.

특히 양계분야는 우리나라에서는 후발 산업으로 아직 기초가 잡히지 않는 상태에서 양계 방역의 첫 단계가 되는 종계와 부화장을 자율이나 자가방역의 제도로 유도하는 것은 위험한 일이다. 필자는 어느 수준에 이를 때까지 강력한 규제로서 종계장과 부화장을 정부 책임하에 관리하는 허가제를 해야하는 사유를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는 닭은 다른 축종과는 번식 생리가 전혀 다르다. 번식 사이클이 빠르고 알로서 번식함으로 질병을 옮기는 경로도 난계대전염(卵繼代傳染)이란 특수성을 지니고 있으며 또한 부화라는 과정을 거쳐 집단 대량 인공기계 번식을 함으로 부화장 유래의 질병이 집단적으로 발생하여 병아리를 구입한 실용계 사육농장의 피해가 상상을 초월하고 있다.

따라서 선진국에서는 소나 돼지와는 구분하여 가금을 번식이나 질병관리를 사육농가의 보호차원에서 별도의 법을 제정하여 국가가 관리, 규제하고 있다.

둘째는 닭의 경우 이들이 생산하는 계란과 닭고기는 축산 식품 중에서도 저지방 고 단백질로서 건강 식품으로 각광을 받아 그 소비가 증가하고 있음을 중시하여 식품 위생학적으로



식중독을 일으키는 살모넬라균이 종계를 통해서 또 부화과정을 통해서 전파 확산하기 때문에 공중 보건학적으로 중요하므로 국민의 보건 차원에서 관리되어야 한다.

셋째는 금년 7월부터 시행되는 제조물책임법(PL법)에 근거하여 만약 종계와 부화과정에서 식중독을 일으키는 살모넬라균이 비롯되었다고 가정할 경우 그 책임의 소재가 누구에게 돌아갈 수 있겠는가를 신중히 고려해야 한다. 정부가 규제완화를 위해서 자율화 시켰다고 그 책임을 국가가 면할 수는 없다.

이러한 사유로 지금 양계분야에서 초 관심사로 등장한 종계장과 부화장 관리를 행정편의와 규제완화라는 미명으로 자율화를 서둘지 말고 산업계와 전문가들의 진지한 검토를 거쳐 후환이 없는 정책결정을 바란다.

병원체에 오염되지 아니한 깨끗한 병아리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다른 포유가축과는 달리 종란을 매개로 병아리에 전파하는(介卵感染) 병원체로부터 종계나 종란을 방어하는 대책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예부터 양계분야에서의 대표적인 개란감염성 병원체인 추백리균에 의한 초생추의 손모가 매우 심하여 이로 인한 심각한 경제적 손실을 경험한 바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양계국가는 국가가 이 병을 철저히 법으로 다스려 거의 종식된 상태이었으나 1980년대 후반부터 세계의 양계분야는 또 다시 이와 같은 종류의 병원체인 살모넬라 엔트리티디스(SE)와 살모넬라 티피무리움(ST)의 유행으로부터 사람들의 건강이 위협을 받고 있어 그 대책을 수립하여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다.

SE나 ST를 포함한 많은 살모넬라는 사람의 식중독균으로서 식품위생이나 공중위생의 분야에서는 중시되고 있다. 특히 계란의 SE의 오염에 의한 식중독은 식품으로서의 계란의 안전성을 묻게 하는 문제 일뿐만 아니라 계란의 소비에서도 크게 영향을 미쳐 양계산업에 있어서 중대한 위협이 되고 있다. 따라서 식란(食卵)을 생산하는 채란계 농장에 병아리를 공

급하는 종계장이나 부화장의 책임은 무겁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외국과는 달리 국민의 정부에서는 규제를 완화한다는 구실로 종계장과 부화장의 국가에서의 막중한 책임을 저버리고 신고제로 가닥을 잡아가고 있어 앞으로 한국 양계의 앞날이 걱정스럽다. 외국에서는 병아리의 생산공급도 HACCP방식에 의하여 운영되고 양계장의 위생관리에 있어서는 모든 공급자 책임을 묻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고 나아가는 추세에 너무나 동떨어진 발상이다.

비교적 소수의 수수인 원원종계군을 정점(頂点)으로 하여 원종계군, 종계군을 거쳐 막대한 수수를 포함한 실용계 계군을 저변(底邊)으로 한 피라미드형의 양계산업구조에서는 혹시 원원종계 1수가 살모넬라병에 감염되면 차세대의 원원종계군에서의 감염은 30배인 30수가 된다, 이와 같이 종계군에서는 그의 30배인 900마리의 종계에, 그리고 실용계 계군에서는 65배인 58,500수에 달하는 다수의 감염계가 출현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안전한 계란과 닭고기 생산, 공급을 위해서는 종계장에서 실용계 농장에 이르기까지 모든 생산단계에서 사람의 식중독을 일으키는 살모넬라를 포함한 난계대전염(in egg infection)이 되는 가금티푸스, 마이코프라스마병, 백혈병, 닭전염성뇌척수염, 레오바이러스감염병 등과 개란성질병(介卵性疾病: on egg infection)인 대장균증 등을 성력적이고 효과적으로 원천 봉쇄하기 위해서는 종계장과 부화장 단계에서 차단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 하겠다.

외국에서는 닭 질병의 예방관리를 위해서 방역의 첫 단계인 종계장과 부화장을 정부가 직접 관리하기 위해서 특별법을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그 실례를 소개하면 미국에서는 1944년에 농업조직법에 근거하여 가금개량법(Natioal Poultry Improvement Plan:NPIP)을 제정하여 종계 및 부화업을 의무적으로 가입토록 하여 난계대 및 종계, 부화장 유래질병의 예방에 치중(등급제), 가금의 생산성 향상과

계란과 계육의 품질 향상, 질병에 의한 피해를 최대한으로 감소시켜 농가 수익을 보장함과 동시에 소비자까지 보호하고 있다. 또한, 양계산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위생프로그램을 운영(사료 위생 포함)하고 있다. 영국에서는 1966년 1월에 가금위생법(Poultry Health Scheme)농업식량성과 스코틀랜드 농업부가 공동으로 운영하고 지방에서는 지역수의관 책임



하에 운영하여 계육과 계란의 생산성 향상과 건전(健全)한 가금자원의 유지와 질병예방규정(검사, 격리예방, 검사, 홍보, 백신사용 전후 검사, 기록, 판매통지)과 가입자의 책무와 신고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질병검사의 의무화(추백리, 가금티푸스), 자주검사(정부동의 후 실시) 100수 이상의 종계장과 6,000개 이상의 부화능력규모는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규제하고 있다. 덴마크도 비슷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여기에는 법정전염병 이외의 부분은 자주방역으로 유도, ND 등의 양성계는 살처분, 전액 국가가 보상하며 살모넬라 양성의 경우 생산물 출하를 금지하도록 규제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는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기초하여 법정전염병은 국가가 전담하되 기타 방역과 위생사업을 위해서는 본법의 '가축전염병예방을 위한 자주적 조치' 조항에 근거, 사단법인 전국가축산물위생지도협회(1980)를 설립하여 행정기관, 사업단, 경매장 등 전국적 협조 체제구축, 효율적으로 방역과 위생사업 실시로 자위방역조직강화, 국가방역에 적극 참여시켜 성과를 높이고 있으며 연간 예산 1,688,773,000엔 (200억 원 상당)을 편성하고 전국단체회원이 양계단체 88개를 포함하여 총2,630단체가 가입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한국양계산업의 현실적인 질병 위생문제와 미래지향적인 산업육성을 위해 국제적 정황과 국내 상황을 깊이 살펴서 생산자와 소비자를 공히 보호하는 데 정부가 주도적 역할을 담당하기를 바라며 외국에서 오래 전부터 시행하여온 종계장과 부화장을 국가가 관리하는 제도를 도입하여 우리나라에서도 가금위생법을 입법화하여 시행토록 제언한다. **양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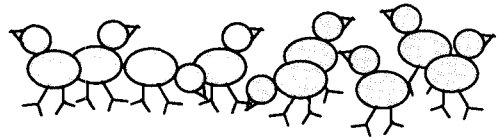
종계를 강제환우하면...

종계를 더욱 장기간 사용하여 환우 후 초생추의 생산원가를 150원까지 절감할 수는 있으나 ...

생산되는 초생추의 가금티푸스

양성율이 높아지고

식란의 살모넬라 오염율을 높입니다.



강제환우하지 않는 부화장...

다음 부화장에서는 종계를 강제환우하지 않습니다.

△ 대구경북양계축협부화장

- 하이라인 브라운 생산

△ 봉산부화장 - 하이라인 브라운 생산

△ 신진부화장 - 하이라인 브라운 생산

△ 양지부화장 - 하이라인 브라운 생산

△ 한양부화장 - 하이라인 브라운 생산



Hy-Line®